

윤구병 <참과 됨>

제1강 - 참말과 거짓말

(1교시)

◆ 참말과 거짓말

(딱딱딱딱~)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계시는 선완규 선생님 하고, 또 다른 한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학문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하는 거짓말은 멀쩡한 거짓말이어서 윤구병과 함께 하는 ‘거짓말 잔치’ 이렇게 강좌 제목을 붙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고는 입도 봉긋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스님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開口卽錯(개구즉착),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뜻이죠.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죠.

우리가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이나 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총명해 보이는 분에게 여쭙볼까요? 여기 어머니- 학구열이 대단하신 거 같은데~ 우리는 어떤 때 참말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까?

(어머니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은 참말이라고...)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거짓말하는 건데요~ (일동 웃음. 하하하하~) 제가 워낙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저쪽에 있는 여자분에게 여쭙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허위라고 하기도 하고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 착오라고 하기도 하고, 참말은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진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때 참말을 한다고 하고 어떤 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까?

(여성분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떨 땐 거짓이 되고 어떤 땐 참이 되고...”

지금 철학 선생님 앞에 두고 철학하실래요? (일동 웃음.)

여러분들이 죄다 우리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어렵게 어렵게 하는 연구만 하고 그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답할 줄 모릅니다.

내가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쭙보면은 바로 튀어 나오거든요. “있는 것을 있다 그러고 없는 것을 없다 그러는 게 참말이고 없는 걸 있다 그러거나 있는 걸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안 그러?”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 틀렸습니까? 있는 것을 없다 그러고 없는 것을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참말은 있는 것을 있다 그러고 없는 것을 없다 그러는 게 참말이고 인걸 아니라 그러고 아닌 걸 이라 그러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참과 거짓의 구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하자면, 어차피 사람도 생명체니까 지 앞가림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 중 혼자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은 드물죠. 지금 끼고 계시는 안경, 곱게 매만지는 생머리, 두텁게 껴입은 양복, 이거 다 스스로 만드신 거 아니죠! 이

렇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 길을 찾아야 살 수 있는 생명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맹수였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람 탈을 썼으니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끼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서로 말을 주고받아서 ‘나 지금 뭐 없는데 너 지금 가진 거 있냐?’ 라든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주고받고 나누면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죄다 거짓말만 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할 길이 차단돼 버리고 결국은 혼자살기 싫어도 혼자 웅크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의무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뻔뻔한 분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없을 겁니다. 거짓말은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거짓말은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이야기 알지요~ 러셀을 비롯해서 널리 실증주의자들에게 난제로 알려졌던 것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어떤 크레타 사람이 아테네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놈 말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해답도 알고 계시죠? 해답 알고 계신 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학생曰: 참말이요) 참말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크레타 사람이니까 거짓말쟁이네요. 근데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해요? 지금 제가 그 형편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그 거짓말인데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말에도 계보가 있고, 전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계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알려 드릴 테니까요~

여기 한번 써봅시다~ (칠판에 적음)

- 참말 : 1.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2. 인 것을 이라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
3. 같은 것을 같다고 하고,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

하도 글씨를 안 써봐서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듯 뽀뽀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개입해 보면 되겠죠~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거짓이 되는지~

굴과 무화과는 다르죠. 그럼 한번 적어보죠 (칠판 적음)

* 굴과 무화과는 다르다 : 일상 언어의 차원 (보통말)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철학자들은 이런 천한 말을 안 쓰고, 차이와 동일성,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실제로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굴과 무화과는 다르다’ 우리가 왜 같다/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 같은 것끼리 모아서 일반화하고 추상화해야 말에 서로 효율성이 있고, 의사소통을 빨리 바르게 하려고 어떤 때는 추상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체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제 이것이 같다/ 다르다라는 말로 이 굴과 무화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매직펜과 마이크를 구별하지 못하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겠죠. 이 세상은 여럿과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多)와 운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말(일상 언어)이 굴과 무화과는 다르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참과 거짓이 갈라서는

것을 논리 언어라고 그러죠. 논리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굴과 무화과는 왜 다르다고 하느냐. 왜 다르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대답이 없자) 꿀들 안 잡수셨죠? (일동 웃음.)

간단합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십시오. 제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낱말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굴은 무화과가 아니고 무화과는 굴이 아니다 (논리 언어)

우리가 이다/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임자말과 풀이말을 이다와 아니다로 연결시키게 되면 거기서 참과 거짓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인 진술이라 그러기도 하고 판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명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대학교 다니신 분들 있나요? 그러면 프로포지션이라고 끔찍한 낱말, 괴물 같은 낱말을 논리학시간에 배웁니다. 그것을 또 괴물 같은 한자로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조금 논리 언어라고 한 등급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왜 굴은 무화과가 아니고 무화과는 굴이 아니라고 그러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생曰: 굴은 굴이고 무화과는 무화과니까.) 에효~(일동 웃음.)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토의 시간 때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 굴에 있는 어떤 것이 무화과에는 없고, 굴에 없는 어떤 것이 무화과에는 있다. (존재언어)

그러면 왜 굴과 무화과는 다르냐고 했을 때에, 굴은 무화과가 아니고 무화과는 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럼 왜 우리는 굴은 무화과가 아니고 무화과는 굴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굴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형태가 됐든 맛이 됐든 색소가 됐든 무엇이든지 굴에 있는 어떤 것이 무화과에는 없고, 굴에 없는 어떤 것이 무화과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은 무화과와 다르다 그러고 굴은 무화과가 아니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대답 없음) 여러분들 동의 안 하면 저는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 그리하여 이것을 존재 언어라고 합니다.

있음과 없음을 나타내는 말을 존재 언어라고 말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존재나 무(無)같은 말을 입에 올린 분이 단 한분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단 오 분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려보고 서로 다른 다(多)와 운동 속에 있는 삼라 만상을 가려보고 그것을 우리가 사는 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만들어 쓰기도 하고 삶에 불편한 것들은 외면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깨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아주 요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쓰지 않고는 우리의 사고를 정리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쓴 이것이 전부 정말 다 참말인가요?

(학생 曰) “네~” 여러분 같은 분들만 있으면 제가 농사 안 짓습니다. 힘들어서 농사 안 짓습니다. 이것을 참말이라고 보시다니 참 딱합니다. (일동 웃음.)

말하자면 여기까지 제가 하는 이것도 기술입니다. 설득술. 여러분들한테 제 말을 듣고 내적인 확신이 지금 있느냐 하면 아직 아닙니다. 다 동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시킨 말이 없지요. 근데 왜 동의를 하느냐, 이게 바로 설득술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처음에는 이야기해 갑니다. 곧 파탄이 나게 되고요~(일동 웃음.)